

# 규슈가 韓國 연구의 주요 거점이 되어야 하는 이유

이상억 \*

규슈에 와서야 깨닫게 된 사실이지만, 특히 북중부 규슈를 중심으로 다음과 같은 ‘최초의 기록’ 또는 ‘흥미로운 사실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 내용들은 이 지방이 한국 관계 연구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지역이며, 또 연구에 유리한 기회가 많고 동시에 일본 내에서의 한국학 발전에 책임이 크다는 점을 절감하게 한다. 규슈는 한반도와 가깝다는 이점 때문에, 일본의 현근대의 중심이었던 도쿄나 긴키(近畿)지방보다 오히려 앞서가던 문화수입의 전진기지였음을 다음과 같은 사실들로부터 알 수 있다.

## I .

농경기 이전 12,000년 전까지의 구석기시대에 대륙으로부터 일본열도로의 영향관계는 물론 잘 알려져 있다. 특히 최근 2003년 12월 20일 아사히신문, 서일본신문 등에 보도된 바와 같이, 일본 내에서 최고급(最古級) 구석기의 유적이 나가사키현 히라도(平戸)시 야마나카쵸(山中町)에서 발견되었다. 이 발견은 2000년에 발각된 구석기발굴날조사건 이후 믿을 수 있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이어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번 출토품은 한반도 남부 도산(道山) 유적의 중기 구석기 (13만년전 - 3만년전)와 비슷하다고 한다. 동일

---

\* 서울대 인문대 국어국문학과 교수, 규슈대 한국연구 센터 객원 교수

본 이와테(岩手)현 지역에서 발견된 약 9만년전 유물들과 비교할 때, 한반도 와 가까운 규주지역에서 나타났다는 점에서 유입의 과정을 보여주는 징검다리의 발견이다. 10-8만년전 일본으로 인류가 도래했을 가능성을 추정케 하는 자연스러운 루트를 보여 주기 때문이다.

그 이후 2,400년까지의 신석기 시대에 해당되는 죄몬(繩文)토기의 존재는 가장 가까운 한반도로부터의 문물 유입을 입증하고 있다. (뒤에 말할 도자기 이전에 토기 제작 기술 유입이 선행했던 것이다.) 쓰시마(對馬)섬 가미아 가타쵸(上縣町) 고시타카(越高) 유적출토 용기문(隆起文) 토기는 약 8,000년 전으로 추정되는 가장 앞선 것이며, 북규슈 쪽의 아다카시키(阿高式, 약 4천년전), 다네사키시키(種崎式, 약 3천년전) 토기도 죄몬시대의 교류를 입증하고 있다.

「注 :도자기(陶瓷器, Pottery)는 도기와 자기를 포함한 말로서 점토를 불에 구워 만든 모든 그릇을 칭한다. 도기(陶器, Earthen Ware)는 유약을 빌라 구운 것으로, 흡수성(吸水性)이 조금 있고, 두드리면 둔하고 턱한 소리를 내는 약간 무른 그릇 즉 소성온도가 1200℃전후반에 구워진 그릇을 말한다. 전돌(磚)이란 벽돌을 뜻하는데 기와(瓦, Roof Tile)나 옹기(甕器) 그릇과 함께 1000-1200℃까지의 온도에서 구워진다. 자기(瓷器, Porcelain, Celadon)는 주로 흰색 점토로 고온 소성된 치밀한 고급 도자기 종류로서, 흡수율이 거의 없는 밝고 아름다운 음색을 가졌고 자기의 소성 온도는 1230~1500℃이다. 토기(土器, Unglazed Earthen Ware)는 주로 2차점토를 사용하여 성형한 후 약간 저온(600~800℃)에서 소성한 다공질(多孔質)의 용기를 말한다. 소성온도가 비교적 낮아 제작이 쉬워 세계 각처에서 제작하였다. 옹관(甕棺)도 대략 여기 속하는 연질토기다.」

## II.

또 2,400년전 한반도에서 건너온 사람들에 의해 전래된 썰농사 기술은 한국과 규슈 북부지방의 출토유물을 비교해 봐도 검증되는 사실이며, 이 기술이 후쿠오카 주변에서 순식간에 일본열도 전국으로 확산되었던 상황을 알

수 있다. 야요이(彌生) 시대(B.C. 4세기 ~ A.D. 3세기)에 사용된 농기구를 통하여, 또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농경 취락지였던 이타쓰케(板付) 유적의 '무라'(農村)와 '무논'(水田)을 보아도 생활상을 짐작할 수 있다. 소위 나코 쿠(奴國)의 영토였던 후쿠오카 평야는 일본에서 가장 빠른 시기에 벼농사와 청동기가 전래된 곳으로, 특히 청동기 제작으로 서일본 일대에서 교역을 주도하여 국력을 배양하였다. 조선계 소동탁 주형(朝鮮系 小銅鐸 鑄型)이 이 청동기시대(B.C. 150 ~ A.D. 500)의 유물 중 하나다. 후쿠오카현 곳곳에는 고대 조선의 온돌 난방의 유허가 약간 출토되고 있다. 사가현의 요시노가리(吉野ヶ里) 역사공원에서도 약 2,000년전 벼농사를 하던 환호(環壕) 취락터의 고상(高床) 창고 등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여기서 발견된 관옥(管玉)은 충남 부여군 적석총 것과 같아 조선제품일 가능성이 높다. 야요이 시대의 규슈북부에서 행해진 용관묘도 한반도의 영향임을 알 수 있다. 가마쓰시마 죠(上對馬町) 후루사토(古里) 출토의 팔찌도 한국 계통임이 완연하다.

### III.

가고시마와 미야사키 현 경계상에 규슈 최고봉(1700미터)인 '가라쿠니다 케'(韓國嶺)란 명산이 있다. 속설로는 한국이 바라보여 그런 이름이 붙었다지만 이미 이 지명은 예전부터 쓰여 왔고 한국이란 공식 국명이 '간코쿠'로 일본에서 쓰여진 것은 반세기밖에 되지 않는다. 그리고 실제로 정상에서 100킬로쯤 북쪽에 있는 구마모토 아소산도 잘 보이지 않는다.

일어에서 韓이란 한자를 '가라'로 읽는 것은 아마도 가라, 가락, 가야 즉 변한(弁韓)에서 온 것으로 보아야할 것이다. 왜냐하면 일본 건국신화의 천손 강림(天孫降臨)이 일어났다는 다카치호미네(高千穗峯, 1574미터)산 정상에서 북쪽으로 바라보면 연봉 끝에 가라쿠니다케가 보이기 때문에, '가라'국을 그리워하는 의도로 명명한 산이름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그런 배경으로 천손 '니니기노 미코토'가 가라국 김수로왕의 둘째 아들이라는 개국신화가 있다. 그는 인도 아유타국에서 온 수로왕비 허씨의 성을 받았고, 그 밑의 7왕자도 같이 규슈로 건너와 일본 왕가의 뿌리가 되었다는 해석이다. 일본

왕가의 보물 ‘삼종(三種)의 신기(神器)’가 가라의 유물인 점도 이를 뒷받침한다. [cf. 김정진 (2003) 일본, 성하출판, 625쪽 참조.]

한편 오이다(大分)현 우사(宇佐)시에 있는 우사하치만구 (八幡宮)는 전국 하치만구 신사(神社)의 총본사인데 대륙에서 온 신라계 오가(大神)씨가 한국신인 야하나노가미(八幡神)를 모시기 시작해 친황가와도 깊은 관계가 맺어 지게 된 것이라 한다.

#### IV.

후쿠오카시 앞의 시카노시마(志賀島) 남쪽 바닷가 산기슭에서 금인(金印)이 나와 “漢委奴國王”이라는 한자들이 쓰여진 물증을 보이고 있다. 이는 서기 57년 중국 후한(後漢)의 광무제가 후쿠오카에 있던 나코쿠(奴國)의 국왕에게 하사한 것이라 해서 국보 지정이 되어 있다. 1784년 농부가 우연히 발굴했다 하니 당시 고고학적 현장 보존이 없었을 것이지만, 현재 가서 보아도 금인이 나올 만한 아무 다른 유허(遺墟)의 흔적이 없는 것이 의아하다. 또 57년이 워낙 옛날 일이어서 앞뒤의 많은 역사 자료들이 없는 것이 문제지만, 이것이 사실이라면 아마도 이 금인이 일본내에서 발굴된 최초의 한자 기록물이라 하겠다. 이 경우는 중국제 도장이 직수입된 셈이며, 한자를 배워 손수 각인한 일본제는 아니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따라서 이 도장의 글자를 읽고 뜻을 알던 일본인은 당시 몇 안 되었을 것이며 한(漢)에게서 노국 왕으로 위(委)임 받은 상징물로 보관했을 것이다. 한국에서 (단순히 한자가 아니라) 한문이 처음 전래된 지역 가운데 하나는 구마모토현 북부에 있는 다마나군(玉名郡) 기쿠수이마치(菊水町) 일대라고 할 수 있다. 이곳 에다후나야마(江田船山) 고분에서 출토된 긴조간메이타치(銀象嵌銘太刀)에는 일본 최고의 한문기록이라 할 수 있는 글씨를 쓴 사람의 이름(‘장안’ 張安, 아마도 일본인이 아닌 듯)이 나타나 있다. 이 유물로 보아 3세기 이전에는 한자가 날자의 수준으로 물건에 기록되어 중국에서 유입되다가, 그 이후부터에야 문장 수준의 도입이 한국으로부터 비롯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 같은 추론은 히라카와 미나미(平川 南) 편(2000) *古代日本の文字世界*,

大修館, 총216쪽에 근거하였다. 동시에 여기서 출토된 부장품도 고대 한반도의 색채가 짙게 남아 있어서, 3세기경 고분시대(3세기말~7세기) 초기에 한반도를 통한 한문 전래의 실제 증거를 보여준다 하겠다. [cf. 다이아몬드 출판부 (1995) 세계를 간다. 일본, 중앙일보사. 649쪽 참조.] (또 후쿠오카시 니시(西)구에 위치한 5세기 초기의 스키자키(鋤崎)고분의 묘실은 백제의 고분과 흡사하다. 고분시대에는 제염 기술이 한국에서 전해졌고 500년경 이후 제철 기술도 도입되었다. 규슈대의 새 캠페스가 될 후쿠오카 서부 모도오카(元岡)에 근래까지 제철소가 유지되기도 했다. 또 5세기 아래 수에키(須惠器)라는 도질토기(陶質土器)가 쓰여왔다.)

원래 니혼쇼키(日本書記, 720)에 의하면 오진(應神) 천황 16년(385)에 백제의 왕인(王仁) 박사가 천자문과 논어를 일본에 가져 왔다고 하지만, 천자문(千字文)은 원래 중국 양(梁)나라의 주홍사(周興嗣, 470?~521)가 무제(武帝)의 명으로 지은 책이라 연대상 선후가 맞지 않는다. 다만 정현(鄭玄, 127~200)이 교합한 정현본(鄭玄本) 논어(論語)등 많은 서적들이 3세기경 전래되었을 가능성은 크다 하겠다. 아마도 왕인 박사도 전라도 영암에서 남해안을 거쳐 쓰시마섬과 이키섬을 지나 규슈 북부로 통과해 나라(奈良)로 갔을 것이니, 그 경과지역에서 이미 논어 수준의 한문을 먼저 소개했을 것이다. [그런데 후쿠오카 지역에서 확실히 논어를 강론한 학자는 가메이 남메이(龜井南冥, 1743~1814)로서 꽤 후기인 18세기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는 일반인에 대한 것일 테니 아마도 상충 지식인에 대한 소개는 이미 초기에 이루어졌을 것이다.]

(주: 논어는 한(漢)나라 때에 제(齊)나라 학자의 〈제론(齊論)〉 22편, 노(魯)나라 학자의 〈노론(魯論)〉 20편이 전해졌고, 따로 공자의 옛 집 벽 속에서 〈고론(古論)〉 21편이 나왔다. 한(漢)의 장우(張禹)는 제·노 양론을 교합(校閻)하여 〈장후론(張侯論)〉 20편을 만들었고 이어 후한(後漢)의 정현(鄭玄: 127~200)은 이 세 가지와 고론을 교합하여 정현본(鄭玄本)을 마련하였다.)

## V.

한국에서 불교가 처음 전래된 지점은 나가사키현에 소속되어 있는 쓰시마섬 미쓰시마초(美津島町) 고후나코시(小船越)의 바이린지(梅林寺)라고 추정되고 있다. 원래 매화나무는 대륙에서 온 귀한 나무라 하여 절이름에도 불인 것같다. 538년 백제의 성왕에 의해 일본에 불상과 불경이 전파되었다는 기록이 있듯이, 이 절에는 남북조시대의 오래된 경전과 8세기경에 제작되었다는 탄생불이 있다. 코후나코시(小船越)라는 곳은, 좀 더 남쪽의 오후나코시(大船越)와 함께, 원래 붙어 있던 쓰시마(두 섬)의 중간을 통과할 수 있는 옛날의 길목이었으니 한반도에서 일본으로 갈 때 배의 통과지점이 될 수밖에 없는 지점이다. [그러다가 일본 해군이 군함을 통과시키기 위해 1900년에 뚫은 제 3의 본격적 운하에 만재카(萬關) 다리가 놓인 것이다. 또한 쓰시마섬 미쓰시마초에는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카네다(金田)성터라는 조선식 산성이 있다. 쓰시마섬에는 신라 때 박제상, 조선 말의 최익현 선생이 순국한 기념비들도 서 있다.]

## VI.

백제와 관계되는 규슈의 유적 중에 흥미 있는 또 한 곳은 미야사키현의 난고촌(南郷村)이다. 663년에 백제와 일본연합군이 나당연합군에게 백촌강(白村江하쿠스키노에) 전투에서 패하자, 3년간 약 2000명이 일본으로 피난을 했다 한다. 백제 의자왕 40인 자녀 중 하나인 정가왕(禎嘉王) 부자도 표류 끝에 난고촌에 피난해 살았다는 전설이 전해졌는데, 실제 이곳의 미카도진자(神門神社)에 소장되어 있는 항아리는 부여박물관의 것과 흡사하고, 신사를 1661년에 개축할 때도 여러 물중이 나왔다 한다. 왕이 쓰던 동경(銅鏡) 등 왕족의 전설 관계 자료를 전시하기 위해 ‘서쪽의 정창원’(西の 正倉院) 이란 명칭이 붙은 집도 지었다.

원래 왕과 왕자가 떨어져 살아야 한다는 점 때문에 1년에 한번 만나던

풍습이 있었다고 한다. 이 전설을 매년 1월 하순 재현하는 시와스마쓰리(師走祭)가 열려, 3일간의 축제 첫날 혼백을 맞기 위해 불놀이를 크게 하고 있다. 3일째 돌아가는 아들신에게 주민들이 ‘オ-サラバ’라고 외치는데 ‘오 살아봐’나 ‘오 서러워(필자 해석)’의 뜻일 듯하다. [cf. 土田芳美 (2000) *百濟傳說神門物語*, 南郷村, 106쪽 참조.] 이곳 주민들은 자진해서 한글을 배우고 백제 후손임을 자부하여서, 이곳을 ‘백제마을’(百濟の里)이라 하고 있다. 이곳 아이들은 학교에서 한국 동요도 배워 한 두 곡은 부를 수 있다.

## VII.

후쿠오카현 곳곳에는 고대 조선의 온돌 난방의 유허가 약간 출토되고 있다. 후쿠오카시 자체에 있는 것으로서도, 견신라사(遣新羅使)를 묵게했던 고로칸(鴻臚館)은 7~12세기 다자이후(太宰府)가 ‘西の都’로 큰 역할을 할 당시 유적이고, 다자이후 정청(政廳) 인근 간세온지(觀世音寺)에 있는 일본 최고(最古)의 범종은 신라계 연화 문양의 특징을 보여주는 국보다. 다자이후의 전(塹)들 문양도 경주 안압지의 것과 흡사하고, 다이자후 관청 배후에 북쪽 시오지(四王寺, 410 m)산정에 조선식 산성 오노죠(大野城)를 쌓았다. 665년 백제 망명 귀족(憶禮福留, 四比福夫 등)의 지도하에 백제식으로 축성한 것이며 남쪽에 기이죠(基肄城)도 쌓았다. 그 1년전 미즈키(水城)도 다자이후 서쪽에 쌓았는데 이는 백제와 일본이 백촌강 전투에서 패하자 신라와 당의 연합군이 침입할 것을 두려워하여 쌓은 것이라 한다. 현재는 후쿠오카현에 속하지만 과거 규슈(九州)의 9개 주(州)중 한 주였던 부젠(豊前)국 다가와(田川)시 덴다이지(天台寺, 698년경 창건) 자리에서 나오는 기와는 신라계인 것으로 밝혀졌다.

후쿠오카시 니시진(西新)과 이마즈(今津)에는 소위 원나라의 침략에 대비하여 쌓았다는 원구방루(元寇防壘)가 있다. 고로칸 옆의 후쿠오카성도 조선 진주성을 모방하여 1600년부터 7년간 축성하였다 한다. 후쿠오카 바로 앞바다에는 쓰시마, 이카섬을 거쳐 본토로 들어오는 조선통신사를 맞는 징검다리로서 아이노시마(藍島=相島)라는 작은 섬도 있어 유적이 발굴되었다. [윤

동주 시인이 해방직전 옥사한 곳도 후쿠오카 형무소로 1991년부터 ‘윤동주의 시를 읽는 모임’이 후쿠오카에서 활동하고 있다.]

### VIII.

차를 일본에 처음 가져온 사람은 후쿠오카 쇼후쿠지(聖福寺)도 창건한 에이사이(榮西)선사(禪師)라고 한다. 그가 송(宋)나라에서 1195년 차씨를 가져와 현재의 사가현과 나가사키현 사이의 히젠(肥前) 세부리(背振: 이 발음을 ‘셔블’서울과 연결시키는 어원설도 있음)산에 재배하기 시작해서 교토까지 전파하게 되어 다조(茶祖)로 불리는 것이다. 그러나 그 당시나 현재에도 일본은 녹차를 끓여 우려낸 센차(煎茶)를 마시고 있어 이는 더 가까운 한반도 남부 지리산 일대(예를 들면, 전남 보성)의 녹차와 흡사하다. 중국은 녹차도 있다지만 대체로 볶아서 발효시킨 홍차를 마시고 있지 않은가? 한반도에 차가 전래 된 시기는 삼국사기에 신라 선덕여왕(631-47) 때라고 적혀 있다. 차도 불교와 관계가 깊은 만큼 이미 한국에서 불교가 전래된 얼마 뒤에 한국을 통해 일찌기 들어 와 있을 수도 있었으나, 차나무를 심기 시작한 시점만이 1195년이었던 것은 아닐까? 양국간의 다도(茶道) 자체에서도 유사점이 적지 않은 것 같다.

(주:九州島는 아주 오래된 명칭으로는 쓰쿠시(筑紫)島라고 불려 있었으며 筑紫, 豊, 火, 소(襲) 4개국으로 나누어졌다. “쓰쿠시”라는 명칭은 국도의 아주 끝 땅이라는 뜻인 것 같다. 701년(大寶1년) 이후에 다자이후(大宰府)가 筑前, 筑後, 豊前, 豊後, 肥前, 肥後, 日向 7개국, 그리고 이키(壹岐), 쓰시마(對馬) 2島를 모두 “西海道”로 통괄하게 되었는데 그후, 몇 단계 변천을 거치면서 사쓰마(薩摩), 오오쓰미(大隅)를 포함한 9개국과 2도(島)로 나뉘면서부터 “九州”라고 불리게 되었다. -출전:平凡社세계백과사전1998)

### IX.

사가(佐賀)현의 북쪽 작은 섬 가카라시마(加唐島)에는 백제 무령왕(武寧

王) 탄생지라는 전설상의 장소가 있다. 그 인근 사가현 북쪽 해안 가라쓰(唐津)에도 옛부터 기시다케(岸嶽)에서 토기나 고려계의 도기를 빚던 사람들이 있었으나 자기를 굽는 기술은 없었다. 이들과 16세기말 조선에서 일본 번주(藩主)들에게 여행되어온 도공들이 기술을 합쳐 후일 ‘가라쓰야키’라는 다도기(茶道器)를 완성하였다. 이 가라쓰의 ‘가라’도 애초 韓津으로 썼을지도 모른다.

이 지역은 예로부터 한반도에서 쓰시마, 이키섬을 경유하여 올 때의 항로에서 가장 가까운 일본 본토이었다. 따라서 사가현 가라쓰 옆 나고야(名護屋) 성 일대 지역은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을 일으키기 위한 준비 기지로서 쓰였다. 15만 병사가 일시에 거주하던 텍사스 타운이었다는데, 이름도 긴키지방의 나고야(名古屋)와 비슷하여 그 부근 아이치(愛知)현 출신 도요토미 히데요시(豊臣秀吉)와 고니시 유키나가(小西行長)의 야망이 서려 있는 곳임을 알 수 있다. 그들은 한반도에 조총(鳥銃)을 소개하였으나, 한반도에서는 이미 위에 열거한 문화적 사항들에 더해 유교, 역(易), 달력, 건축, 한방(韓方) 등을 소개한 것이다.

## X.

차를 마시는 그릇을 소중히 여기는 습관도 불교를 처음 전한 한반도의 불가(佛家)에서 유래된 듯하며, 일본인 특히 전국(戰國) 영주들 사이에는 다도가 유행하여 대륙의 도자기를 소유하기를 열망하였다. 그리하여 임진왜란에 참여한 규슈의 번주들은 한국 도공들을 경쟁적으로 끌고 갔다. 이후 조선의 청자와 백자 기술이 일본에 전하여져 임진왜란을 ‘도자기 전쟁’이라고도 한다.

일본의 사찰 및 신사 건조를 위한 무역선, 즉 지사조에이료토센(寺社造營料唐船)이 중국 낭포(寧波)에서 하카타(博多)로 귀국하던 중 한반도 남서부 신안(新安) 앞바다에서 1323년 난파하였다가 발견된 속에서도 많은 청자 백자가 실려 있었다. (한편 승려 손카이(尊海)는 조선에 직접 도항하여 병풍을 가져오기도 했는데 그 뒷면에 자세한 여행 일기가 쓰여 있다. 이렇게 서도,

수목화도 자연히 유입되게 마련이었다.)

## XI.

임진왜란 때 남치당한 많은 조선 도공들 중 이삼평(李參平)은 사가현 이즈미야마(泉山) 자석장(磁石場)을 처음 발견하고 1616년 아리타야기(有田燒)를 시작하여 일본의 도조(陶祖)로 받들어지고 있다. 아리타에 일본 최초로 한국(도자)연구센터를 세운 셈이다. 이때까지 일본에는 도질토기(陶質土器)를 빚던 사람들은 있었으나 자기를 굽는 기술자는 없었다. 아리타 덴구다니(天狗谷)에서 계속된 한국 백자 기술의 재현은 일본 도자기사상 획기적 사건이었다.

서양궁전에까지 많이 수출된 이마리(伊萬里) 도자기도 사가현 이마리 남쪽 교외 오카와치야마(大川内山) 골짜기의 절경 속에 고려인 도공묘(高麗人陶工墓)가 많이 남아 있어 그 시초의 유래를 증명한다. 나가사키현 히라도(平戸)에도 조선 진해에서 연행되어온 도공들의 흔적인 고려비(高麗碑)와 고려정(高麗町)이 있다.

가고시마시 북쪽 미야마(美山) 심수관요(沈壽官窯)도 정유재란 때 정용된 80여명의 조선 도공 중 심당길(沈當吉)이 1605년부터 이나시로카와야기(苗代川燒)를 시작하였고, 1623년에는 박평의(朴平意)와 함께 기리사마(霧島), 이브스키(指宿) 등지에서 백토를 발견하여 사쓰마야기(薩摩燒)를 열었던 전통을 계승한 것이다. 현재 이탈리아 국립도예학교에도 유학했던 15대 심수관이 한국인의 정체성을 느끼게 하는 '바닥, 지레, 수레' 등의 전래 용어를 써 가며 수준 높은 가업을 이어가고 있다. [그에 비해 야마구치(山口)현 하기(萩)에 있는 사카 야기(坂窯)는 원래 1625년 이경(李敬)에 의해 고려 좌아문(高麗左衙門)으로 시작되었으나 현재 한국인의 후예라는 의식이 별로 알려져 있지 않다.]

## XII.

한국과 가고시마는 다른 사연도 많다. 1543년 포르투갈 상선이 가고시마로 표류해 와서 철포를 전래해 준 사건이 있었다. 가고시마 시마즈(島津) 영주가 부하를 시켜 돈과 여자 아이를 주며 2정의 총(銃)을 입수 복제한 것이 한반도에 임진왜란을 일으키는 바탕이 된 것이다. [cf. 김정진 (2003) 일본, 성하출판, 625쪽 참조.] 임란때 사람만이 아니라 조선 고양이도 데려가서 그 눈동자 크기의 변화를 보고 시간을 짐작했다는데 가고시마가 자랑하는 이소테이엔(磯庭園) 속에 그 기념물이 남아있다. 또 가고시마는 정한론(征韓論)을 폈다고 오해되고 있으나, 사실은 평화사절로 조선에 가서 개국 시키기를 자원했던 명치유신의 영웅 사이고 다카모리(西郷隆盛)의 본거지이기도 하다. 그가 탄생한 가고시마 가지야쵸(加治屋町) 동네에서 고려교(高麗橋)만 넘어가면 고려정(高麗町)이라는 옆 동네가 있다. 아마 어려서부터 한국에 대한 모종의 생각을 가지게 한 계기를 주었을 것이다. 1904년 일로전쟁시 일본 연합함대 사령관으로 승전한 토고 혜이하치로(東郷平八郎)도 이 가지야쵸 출신으로 이순신 장군을 숭배하며 부하들에게도 충무공의 저서를 읽게 했고, 충무공의 학의진법(鶴翼陣法)을 본따 T형전법을 써서 러시아 밸티 함대를 궤멸시켰다는 것이다. 한편 박평의 자손 박씨들도 토고(東郷)이란 성을 많이 써왔으며, 그중 미야마 출신 토고 시게노리(東郷茂惠)는 일제말 외무대신을 지내며 침략전쟁을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패전후 전법으로 처형되었다. [cf. 신창연(2003) 일본 큐슈, 엘 까미노, 220쪽 참조.] 가고시마 남쪽 옛 무사촌 지란(知覽)에는 일제말기 특공대 발진기지가 있어 11명의 조선청년이 아리랑을 부르며 가미가제(神風)란 알카에다식 인간 폭탄으로 희생된 위령비가 서있다. 그런데 수많은 한국인이 희생된 나가사키에는 민간인이 세운 자그마한 한인피폭사망자 위령비만 있는 현실은 너무한 일인 것 같다. 히로시마에는 평화기념공원 한 구석에 약 2만 희생자 위령비가 그래도 크게 서 있다.

## XIII.

구마모토도 여러 한국 관계의 사항들이 있는데, 가토 기요마사(加藤清正)가 조선 침략시 병사들에게 먹였다는 조센아메(朝鮮食台)라는 캔다가 지금도 팔리고 있다. 가토는 임란 후 구마모토 영주로 부임해 조선 포로도 동원하여 성을 건축하며 기와 제작이나 축성술에 조선 기술(호태好太왕릉 방식)을 응용하였다 한다. 이 성은 서남(西南)전쟁 시 사이고 군대의 강력한 공격에도 잘 견딘 견고성으로 유명하다. 또 구마모토 출신이 일제 때 가장 많이 한반도에 경찰로 진출하여 그 인연을 이어 온 곳이기도 하다. 한편 규슈는 그 이전에도 명성왕후 시해 사건 등, 근대에 와서 조선, 중국에 소위 대륙 낭인(浪人)을 많이 보낸 곳이었고, 많은 한국인 노동자들을 데리고 온 탄광들이 있는 땅이기도 하다.

이상과 같은 사실들을 폭넓게 연구하기 위해서, 규슈는 바로 현장을 가지고 있는 가장 적지(適地)라 할 수 있다. 규슈 중에서도 ‘한국연구센터’를 1999년부터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는 규슈대는 명칭부터 그 태도가 선명하여 특히 호감이 간다. 가령 ‘한국조선문화연구’라는 식으로 한국과 조선을 꼭 병용해야 객관적이라는 듯이 행세하는 태도는 애매하기 그지없다. 이는 마치 한국이나 조선어 어느 쪽으로도 부르기 곤란하므로 ‘한글어’라고 하는 웃지 못할 이름을 만들어 부르는 경우와 흡사한 태도이기 때문이다. 한글은 문자의 명칭인데, 언어의 이름으로 쓰는 일은 망발이 아닐 수 없다. 마치 일본어를 ‘히라카나어’라 하는 것과 같은 꼴이다. (실제로 일본에서 ‘가타카나어’라는 말은 외래어나 신어에 대한 별칭으로 쓰고는 있다.)

위의 글을 쓰다가 서점에서 九州の中の朝鮮文化を教える會 巻(2002) 九州のなかの朝鮮, 明石書店, 총 187쪽의 책을 찾았다. 그 내용이 이 글과 깊은 관련이 있으나 이미 위의 글로 대부분 언급이 되었기에, 우사(宇佐) 하치만구(八幡宮)와 무령왕(武寧王) 탄생설화만 더 인용해 이 글에 보태 두기로 한다. 나머지 대부분은 현지에서 직접 얻은 정보들로 채운 것이 많다.

## 사견선(使遣船) 복원 협찬 운동 제안

### 〈조선통신사〉

한반도의 삼국시대 아래 쓰시마 섬(對馬島)은 일본측에 있어서 한반도 약탈과 밀무역의 본거지였다. 이러한 와코(倭寇)의 본거지에 대해 고려말 조선 초 시대인 1389년, 1396년, 1419년의 세 차례 정벌이 있었다. 그 직후 조선 조정이 무로마치 막부 3대의 아시카가(足利) 장군을 일본국왕으로 인정한 1428년 아래 수 차례 통신사란 명칭의 정식 사절단을 파일하였고 막부도 60 회 이상 사자를 파한하였으나 1590년 이후 일본내 사정으로 국교가 중단되었다.

부질없는 야망으로 시작된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즉 분로쿠(文祿)와 게이조(慶長)의役, 1592-3, 1597-98)으로 한반도에는 큰 상처만 남게 되었다. 그 후 1607년 도쿠가와(惠川)정권이 조선국과 국교회복을 바라며 조선통신사의 파견을 요청하여, 약 4~500명으로 구성된 문화사절단이 한양에서 부산 경유 쓰시마에 상륙한 뒤 세토나이카이(瀬戸内海)를 거쳐 에도(江戸)로 향하였다. 이 중간에는 쓰시마번(藩)의 노력이 컸고 국교회복 후 약 200년 동안인 1607~1811년간에 12회에 걸쳐 우호적 방문을 하였다. 이 교류는 쇄국정책을 쓰던 에도 정부가 유지한 유일한 국가적 대외 창구였다. 나가사키 항구 앞의 데지마(出島)에 있던 네델란드인이나 류큐의 사신들에게도 에도(江戸) 방문이 허용되었으나, 통과 경로부터 국빈 대접의 격이 달랐다. 7회째 방문 이후는 민간접촉도 활발해졌고, 최고 관료, 학자, 통역관, 무인, 의사, 승려, 화가, 악대, 소동(小童) 등 다양한 구성원이 일본에 문화를 전파하였다. 특히 1703년 음력 2월 5일 108명의 역관사(譯官使)를 태운 사견선(使遣船)이 부산을 떠났으나 쓰시마 북단의 와니우라(鰐浦)항 앞에서 급변한 날씨로 조난하여 전원이 사망하였다. 지금 북쓰시마 히라카스(比田勝) 북쪽 고라이야마(高麗山) 옆 한국전망대 앞에 그들의 위령비가 서있다. 쓰시마에서 외교와 교육으로 일생을 바친, 보기 드문 일본인 아메노모리호슈(雨森芳洲, 1668~1755)의 말대로 “성신지교린”(誠信之交隣)을 목숨까지 바쳐 실천하기 위한 희생이

었다. 조선통신사가 통과하는 지역에서는 약 20년만에 한번씩 외래문물을 구경할 수 있어 각지의 영접이 성황을 이루었고 한문 필담으로 유학자(儒學者)간의 면담도 이루어졌다. 일본인 안내 수행요원까지 약 2,000명이 시모노세키, 후쿠야마, 오사카, 교토, 도쿄에 이르는 경로로 행렬을 지어갔다는 것은 큰 사건이 아닐 수 없었다. 당시 기록해 놓은 문서와 그림은 현재 일본의 과거 연구에 중요한 자료로 쓰이고 있고, 최근에도 오카야마, 고쿠라 등지에 그 전시가 되고 있다. 조선통신사가 통과하는 행렬을 재현하는 쓰시마 아리랑 마쓰리는 매년 8월 첫 주말에 열리고, 조선통신사 문화사업 추진위원회나 조선통신사 연고지 연락협의회가 결성되어 많은 일본 자치단체도 참여 협력하고 있다.

### 사견선(使遺船) 복원

그동안 거북선은 여러 척 복원되었지만, 조선통신사를 태워 날랐던 사견선은 현존하는 것이 없다. 한국내에서 유일한 조선장(造船匠) 무형문화재인 김귀성(金貴星, 52세)씨가 이를 복원하기 위해 재료비 10억원에 제작기간 3년이 예상되는 작업을 서울 근교 경기 하남시 미사리 올림픽 조정경기장 부근에서 시작하였다. 100여명의 사신을 방 14개에 태우는 이 배는 조선 기술 뿐 아니라 전통 한옥 제작 기술과 단청, 옻칠, (돛을 위한) 자연 염색술 등이 종합적으로 응용되어야 한다고 한다. [동아일보 2003년 11월 17일 보도]

현재 이 사업은 정부 지원도 없이 개인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형편이라, 조선통신사 문화사업 추진위원회나 조선통신사 연고지 연락협의회가 결성되어 있는 일본 자치단체, 또 JR 비틀 여객선회사 등도 참여하여 후원금 모집 운동에 협력하면 좋을 것이다. 과거 평화적 교류의 상징이던 조선통신사가 탔던 배를, 현대인들이 다만 1만엔씩이라도 기부한 각출금(미래의 승선권)으로 건조하여 본인들도 한번 승선해 보는 일은 실로 유쾌한 경험이 아닐 수 없을 것이다.

### 참고문헌

- 히라카와 미나미(平川 南) 편(2000), 古代日本の文字世界, 大修館.
- 다이아몬드 출판부(1995), 세계를 간다, 일본, 중앙일보사.
- 土田芳美(2000), 百濟傳說 神門物語, 南郷村.
- 김정진(2003), 일본, 성하출판.
- 신창연(2003), 일본 큐슈, 엘 까미노.
- 九州の中の朝鮮文化を放える會 편(2002), 九州のなかの朝鮮, 明石書店.